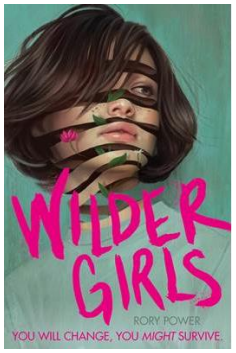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WILDER GIRLS
가제 : 렉스터 섬의 비밀
저자 : Rory Power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SF 스릴러

*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터키 판매 완료, 영화 판권 옵션 계약 /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날카로운 시선으로 엄청나게 다채로운 감정들을 영리한 방식으로 축적된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Annihilation』의 작가 제프 반데르메르
* "투지가 넘치고 풍성한 데뷔작. 작가는 오싹한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엮어 가며 독자의 예상을 뒤집는다." - 「커커스 리뷰」

벌써 18개월째, 생필품을 전달하러 온 배가 섬 서쪽 작은 선착장에 도착할 때마다 헤티는 정해진 위치에서 총구을 겨눈다. 학교 울타리 너머, 우거진 숲 어딘가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나 배에서 내려진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덮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짝인 바이어트와 늘 짝을 이뤄 정문과 도로 쪽을 유심히 살피는 내내 헤티의 오른쪽 눈 아래는 심장이 또 하나 들어 앉은 것처럼 팔딱거린다. 렉스터 여학교와 섬 전체에 스멀스멀 스며든 알 수 없는 병은 사람,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생물이라면 뭐든 집어 삼키고 있다. 섬주민들은 제각기 다른 타이밍에, 저마다 다른 이상한 증상으로 '톡스'라 이름 붙여진 이 무시무시한 병에 힘없이 붙들리고 말았다. 헤티에게는 눈 한쪽이 닫혀버리는 변화가 일어난다. 오른쪽 눈꺼풀이 들러붙어 마치 찢어진 상처가 결합되듯 눈을 덮어버리더니 그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더 정확히는 뭔가 새로 자라나려고 꿈틀대는 느낌이 들었다. 바이어트, 그리고 또 한 명의 단짝인 리스를 비롯해 톡스가 덮치기 전까지는 100여 명에 이르렀던 전교생과 20여 명의 교사들 전부 형언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된다. 헤티나 바이어트, 리스처럼 목숨이 건재한 사람은 이제 절반 남짓, 나머지는 극심한 변화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거나 고통 속에 발버둥치다 죽음을 맞는다.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본토의 질병예방통제센터와 해군 기지는 톡스가 렉스터 섬을 덮치고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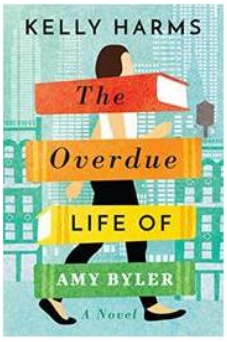
개월이 지나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자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격리 조치를 내린다. 그렇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언제 또 누가 무슨 변화로 갑자기 죽어나갈 지 모른다고 늘 생각하면서 두 명의 교사와 학생들은 어서 치료법이 개발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헤티가 렉스터 여학교에 입학한 건 아버지가 해군이라 전액 장학생으로 이 기숙학교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열세 살 때 처음 섬 생활을 시작한 후 줄곧 붙어 지낸 친구 바이어트는 톡스에 가장 늦게 감염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아이들 틈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바이어트는 뒤늦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등 아래 쪽, 허리 부근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헤티는 그곳에서 나뭇가지가 자라나듯 또 하나의 척추가, 바이어트의 연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다. 며칠에 한 번씩 배급품이 항구에 오는 날이면 늘 빠듯하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배분되던 식량이 조금 늘어나는데, 항상 배가 고파서 친구고 뭐고 서로 때리고 밀치면서 가방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드는 싸움에 헤티와 바이어트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역시나 같은 기숙사를 쓰는 친구 리스 덕분이었다. 리스의 왼손 전체는 손가락 끝까지 바늘처럼 뾰족하고 딱딱한 은빛 비늘이 덮여 있어서 그 근처에서 함께 싸우는 아이들은 없었다. 그렇게 세 친구는 무전기 외에 외부와 통신까지 두절된 섬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교장 선생님 외에 단 한 명 남은 웰치 선생님의 지휘로 총 쏘는 연습을 하면서, 톡스에 감염되어 몸집이 세 배는 더 커진 괴상한 동물들의 공격에 늘 대비하고 있다. 바깥 세상이 이들을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모두가 어렴풋이 느낀다. 계절이 바뀔 때쯤 갑작스레 재발하는 톡스의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다시 건강하게 멀쩡한 몸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헤티는 어느 날 바이어트가 사라지자 어쩌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톡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정부와 해군이 시키는 대로 학교 담장 안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생존자들을 기만한 비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경계 너머에 톡스보다 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웰치 선생님마저 죽고 공식적으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전기가 유일하게 비치된 교장실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는 교장 선생님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헤티는 리스와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바이어트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결국 섬 끝까지 간 헤티는 렉스터 여학교 외에 사람은 전혀 없다고 믿었던 그곳에 새로운 실험 시설이 세워진 것을 발견한다. 톡스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세운 임시 시설은 치료제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임상시험을 위해 마련된 곳이었다. 바이어트는 이들의 실험 쥐가 된 것일까? 서바이벌 스릴러인 동시에 종말의 분위기가 가득한 로맨스에 생태비평적 요소와 페미니즘이 결합된 흡입력 강한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리 파워(Rory Power)는 미들버리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소설 쓰기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OVERDUE LIFE OF AMY BYLER
가제 : 엄마 좀 쉬고 올게
저자 : Kelly Harm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5월 1일
분량 : 332 페이지
장르 : 로맨틱 코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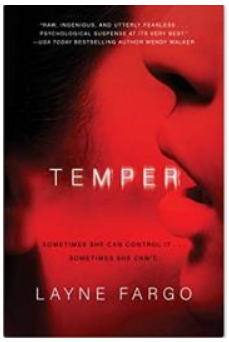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판매 완료 / 워싱턴 포스트, 아마존 베스트셀러
* "현대 사회의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복잡다단한 감정에 묻혀 있던 주인공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 따뜻하고 위트가 가득하다." - 「북리스트」
* "부모의 삶, 이혼, 데이트, 그 사이의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묘사한 소설" - 『Slightly South of Simple』의 작가 크리스티 우드슨 하비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지만, 에이미의 삶은 180도 확 바뀐다. 해외 출장을 떠난 남편이 코리와 조, 두 아이들과 자신만 남겨두고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수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이혼을 하거나 사고로 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예고도 없이 가족 모두를 내팽개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지난 3년간 에이미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없이 지낸다. 그동안은 식품회사 변호사로 일해왔던 남편 존의 수입이 꽤 많은 편이라 벌어다 주는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두 아이들도 좋은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하루 아침에 수입원이 끊겨버렸으니, 당장 나가서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다.
학교 사서로 일하면서 펜실베이니아 시골에 박혀 그렇게 3년을 싱글맘으로 살아남는 법을 힘겹게 터득해가던 어느 날, 다시 한 번 에이미의 인생을 뒤집는 일이 벌어진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던 남편 존과 옆 동네 약국에서 마주친 것이다. 사라질 때처럼 자기 멋대로 돌아온 존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며 용서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에이미가 퍼붓는 비난과 분노, 원망을 다 받아들이며 존이 바란 건 한 가지, 이제 15살, 11살이 된 두 아이들의 아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마음 같아선 썩 꺼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무엇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길일까 고민하던 에이미는 결국 진심 어린 존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마침 뉴욕에서 전국의 사서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었고, 에이미는 존의 제안대로 육아에 찌들어 살았던 시간을 보상 받을 겸 일주일 간 뉴욕에서 너무나 갈망하던 휴가를 즐기기로 결심한다. 존이 두 아이들과 제대로 화해할 수 있을지,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상처만 주는 건 아닌지 한편으론 염려됐지만 일단 떠나기로 마음 먹는다.
뉴욕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읽고 싶었던 책도 실컷 읽고 모처럼 세상 구경도 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에이미는 대학 시절 단짝이던 탈리아 덕분에 훨씬 더 짜릿한 모험을 즐기게 된다. 최신 기술을 거부하고 시골에서 세상과 격리돼 살아가는 종교인 아미쉬 파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바깥 세상을 실컷 경험해볼 기회를 주는 전통을 '럼스프링가'라고 하는데, 탈리아는 에이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에서 한동안 벗어나는 '맘스프링가'라고 주장했다. 라이프스타일 잡지 편집장답게 탈리아가 가장 먼저 제안한 건 '변신'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재미 있는 친구의 손길에 따라 머리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확 달라진 에이미는 고대하던 컨퍼런스에서 지적이고 섹시한 사서 대니얼과 만나 데이트를 즐긴다. 두고 온 아이들과 존의 관계도 꽤 순탄하게 흘러갔는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존은 에이미에게 여름 내내 아이들은 자신이 돌볼 테니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라고 제안하고, 에이미는 뉴욕에서 난생 처음 맛본 일탈을 좀 더 오래 즐겨보기로 한다. 탈리아가 '맘스프링가'를 기획 기사로 잡지에 싣기로 하면서 에이미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대니얼과 사랑을 키워간다. 딸 코리가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와 편지로 아이들이 큰 상처를 줬던 아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이미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불안하다. 남편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여름이 끝나면 이 모든 새로운 만남들은 어떻게 될까? 13주의 꿈 같은 뉴욕 생활이 끝나고, 한순간의 설렘이라고 하기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게 된 대니얼과 이별하고 다시 가족들에게 향하면서도 에이미의 머릿속에는 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에이미의 예상대로, 존은 아이들에게 다시 아빠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 다시 예전처럼 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털어 놓는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가 홍콩 출장 도중에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다신 찾지 말라고 통보하기 전부터 결혼 생활은 깊숙한 곳에서 이미 균열이 일었음을 잘 알고 있다. 반면 대니얼과 대니얼의 딸 카산드라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에이미의 마음 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으로 남아 있다. 무엇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돌아오고 싶어하는 존, 모든 면에서 신기할 만큼 잘 통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대니얼,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큰딸 코리, 그리고 엄마에게 새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는 아들 조 사이에서 에이미는 이제 누군가의 통보가 아닌, 스스로 어떤 인생을 만들지 선택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른다. 개인의 삶을 잃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던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유쾌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켈리 함스(Kelly Harms)는 하퍼 콜린스 출판사 편집자, 문학 에이전트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서로는 『The Good Luck Girls of Shipwreck Lane』 등이 있다.



제목 : TEMPER
가제 : 그 사람의 연출
저자 : Layne Fargo
출판사: Gallery/Scout Press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심리 스릴러

* "속임수나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작전 없이 기발한 스토리와 인간의 감정, 관계에 관한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만으로 심리적 서스펜스를 최고조로 끌어내는 소설" – USA 베스트셀러 『The Night Before』의 작가 웬디 워커
* "희생자와 가해자, 실제 삶과 판타지의 경계를 만지작거리는 심리전 속에서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간다" – 『LAST WOMAN STANDING』의 작가 에이미 젠트리

서른을 넘길 때까지 내세울 만한 작품 하나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배우 키라는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인 말콤 머서의 극단에서 새롭게 제작하는 연극 오디션에 참가한다. 시카고 연극계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연출과 단둘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단 두 명의 배우만 등장하는 창작극 '템퍼'는 지금까지 말콤 머서와 극단 공동 창립자인 조안나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자 주인공은 말콤이 맡기로 했고 상대역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다. 오디션 당일, 가장 마지막 순서라 대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키라는 온 얼굴에 마스카라가 다 흘러내린 채로 몸을 떨며 나오는 여배우를 발견한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키라가 단역으로 참여했던 연극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었고 이후에도 극장 거리를 오갈 때마다 늘 포스터에 얼굴이 크게 보이던 그 배우가 분명했다. 오디션 앞 순서였던 그녀가 극장 안에 들어간 건 불과 10분 전인데, 언제 봐도 발레리나처럼 몸을 꼿꼿하게 세운 당당한 자세가 돋보였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가 봐도 큰 일을 당한 사람처럼 와르르 무너진 사람이 되어 쫓기듯 나온 걸까? 사실 말콤 머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을 자극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 오디션에서도 그 특유의 '기술'을 발휘한 걸까? 두려움과 긴장, 왠지 모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무대에 오른 키라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말콤을 본 순간 직감한다. 그는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사람과는 아주 많이 다른 사람이었다.
무대에 선 순간부터 시선을 단 한 번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바라보는 말콤의 시선을 키라만 느낀 건 아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극단 공동 대표이자 말콤과 한 집에 사는 사람, 그와 연인이고 싶지만 아주 친한 친구 그 이상은 간격을 좁히지 못해 늘 초조한 조안나 역시 키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말콤의 몰입을 누구보다 제대로 인지한다. 연극 '템퍼'는 비밀이 많고 냉철하면서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여배우가 필요했지만, 조안나의 눈에 키라는 그런 요건

과 전부 정반대되는 배우였다.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하는 진한 성적 매력을 여지없이 발산할 뿐 연기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무대에 서고 싶은 열망을 성실한 노력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크게 하지 않는 전형적인 타입, 키라는 딱 그런 여배우로 보였다. 말콤은 키라가 준비해온 연기를 다 끝낼 때까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오디션이 다 끝날 무렵, '피가 나는 군요.'라고 건넨 말이 전부다. 이력서에 나와 있듯이, 생계가 힘든 배우들이 대부분 그렇듯 키라도 무대에 서지 않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청소년들이 찾는 연기 아카데미에서 가짜 피를 분장 소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옷에 그대로 묻은 채로 오디션을 보러 온 것이다. 아직 키라는 알지 못했지만, 말콤이 건넨 그 말은 '템퍼'의 대사 중 하나였다. 그는 이미 키라를 자신의 상대역으로 정한 것이다.
다음 날 합격 통보를 받은 키라는 기쁨에 취해 함께 사는 친구이자 역시나 무대 연출과 배우 일을 겸하는 스펜서를 비롯해 주변 지인들이 말콤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말콤과 몇 번 한 무대에 오른 적이 있는 배우는 '생각보다 최악일 것'이라고 진지하게 경고하기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다. 연극에 막 발을 들인 신인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다 원래 연출들은 다 괴팍하고 트집 잡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말콤은 사사건건 키라의 연기를 지적했고, 퍼붓는 욕설은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지만 키라는 꿋꿋이 이겨내며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집중한다. '템퍼'에서는 두 남녀 배우가 서로를 향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고 급기야 여자가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결국 상대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말콤은 연기가 아닌 속에 잠재한 진짜 분노를 끄집어내야 한다고 호통을 친다. 키라가 어떻게 해도 집중을 못 한다며 난리를 치던 말콤은 그간의 소문이 정확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 키라를 때렸던, 예전 남자친구를 리허설에 데려온 것이다. 들끓는 진짜 분노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그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기겁하면서도 키라는 점점 조여오는 말콤의 도를 넘는 '연기 지도'를 대차게 거절하지 못한다. 그 사이, '템퍼'를 무대에 올리기 위한 온갖 자질구레한 일 처리를 도맡아 하면서 재능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키라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쏟는 말콤을 바라보는 조안나의 분노는 조용히 끓어 오른다.
작가는 서로 다른 이유로 말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이성을 잃어가는 키라와 조안나의 시선을 번갈아 따라가며 두 사람의 타오른 감정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말콤의 집요한 비판과 그만의 연기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증오심이 커지면서도 단 한 번만 칭찬 받고 인정 받고 싶다는 절박함에 시달리다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는 키라와 오디션 날부터 키라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위협을 느낀 조안나의 감정, 그리고 말콤에게도 밝히지 않은 충격적인 비밀이 팽팽하게 대치되는 가운데 극중 장면과 이들의 실제 삶은 서서히 경계를 잃어간다. 야망과 기만, 권력의 무서운 힘을 긴장감 가득한 문장으로 그린 심리 스릴러다.

<저자 소개>

레인 파고(Layne Fargo)는 연극과 도서관학을 공부하고 'Pitch Wars'에서 멘토로 활동 중이다. 미스터리 장르 작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Sisters in Crime' 시카고 지부 회원이기도 하다.

제목 : MOTHER KNOWS BEST
가제 : 1%의 균열
저자 : Kira Peikoff
출판사: Crooked Lane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 스릴러

* "훌륭한 책이라면 반드시 가진 특징을 모두 갖춘 책. 생각하게 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다 읽고 나면 행복을 느끼게 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리 차일드(Lee Child)
* "윤리와 과학의 수렴점에 놓인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스마트하면서도 스릴 있게 그린 소설. 가슴 아픈 인간의 이야기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BUTTON MAN』의 작가 앤드류 그로스

남편, 딸과 함께 뉴욕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클레어는 나날이 엉뚱한 행동이 늘어가는 딸 애비게일로부터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클레어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예고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혹은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인 것이지만 이제 5학년인 딸아이가 그런 엄마의 불안감을 다 알 리가 없다. 남편 로버트 역시 애비게일의 말에 당황하며 아내의 손을 꼭 쥘 뿐, 그 역시 아는 바가 없었다. 늘 외출할 때면 푹 눌러쓰는 야구모자를 더욱 깊이 누르며 박물관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클레어는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 콜튼을 떠올린다. 클레어가 도망자 신세가 된 후에도 1년에 한 번은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병이 깊어진 후에도 이곳을 오려고 했던 콜튼을 기리기 위해서다. 매년 이젠 떠나버린 아이의 생일이 되면 클레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상한 로버트의 배려로 박물관을 찾아와 콜튼과 함께 마지막으로 왔던 날을 떠올린다. 아직도 생생한 그 날의 감정이 차오르려던 그 때, 클레어는 딸아이가 통보한 깜짝 이벤트의 정체와 직면한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 고사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도 두려워 그저 'J'로만 남긴 그녀, 질리언이 현관 쪽에서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클레어와 로버트를 응시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악연은 클레어가 콜튼을 잃고 다시 아이를 낳기로 겨우 마음을 먹었을 때 시작됐다. 엄마에게서 물려 받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숨어 있던 희귀한 유전 질환이 아들을 앗아갔기에 다른 아이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던 클레어는 당시 남편이었던 이선의 설득으로 파격적인 시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시험관 시술과 동일하지만, 문제가 된 클레어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건강한 다른 여성의 DNA로 바꿔서 수정란을 만드는 그 새로운 기술은 로버트 내쉬라는 과학자의 손에서 탄생했다. 아직 인체 실험이 완료되지 않았고 두 명이 아닌 세 명의 유전자가 하나의 수정란에 결합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일이기에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클레어는 두 번 다시 아이에게 병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인체 실험 대상자로 써 달라는 클레어의 간곡한 요청에 마음이 움직인 로버트는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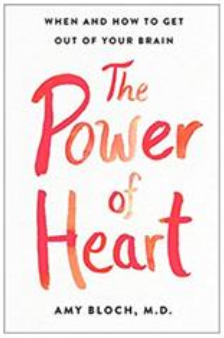
이자 자신의 연인이기도 한 질리언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활용하여 클레어와 이선 부부의 두 번째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시도를 몰랐던 이선은 착상까지 무사히 완료되고 클레어의 임신이 마침내 안정기로 접어든 즈음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다. 급기야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며 로버트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자 로버트는 체포를 피해 달아나기로 결심하고 겨우 얻은 건강한 아이를 잃을 수 없었던 클레어는 그와 함께 도망치기로 한다. 결국 남아 있던 질리언 혼자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체포되어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클레어와 로버트는 이후 10년 동안, 철저히 신분을 감춘 채 힘들게 세상에 태어난 애비게일을 함께 키우면서 조용히 살아왔다. 워낙 놀라운 사건이었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 혹시라도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애비게일이 유치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마음 놓고 교문 앞에 나가보지도 못했고, 늘 불안에 떨며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는 삶이 되었지만, 그래도 클레어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 눈 앞에 질리언이 하나도 변치 않은 모습으로 떡 하니 나타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죽은 콜튼과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자꾸만 질리언의 눈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설은 클레어와 질리언, 그리고 두 사람의 DNA를 모두 가진 아이 애비게일의 시선에서 이 뒤엉킨 관계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보여준다. 호기심 많고 영리한 애비게일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인지 그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고, 지금의 엄마 뿐 아니라 또다른 엄마가 있고,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10년간 감옥에서 이를 갈며 복수를 결심한 질리언이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딸이기도 한 애비게일을 모두 되찾기 위해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래 전, 같은 연구실에서 지낼 때부터 로버트를 존경하는 마음이 집착에 가까운 사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질리언은 클레어가 난데없이 나타나 그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한다. 로버트는 마음이 여려서 사랑하지도 않는 클레어를 뒷바라지해왔을 뿐, 사랑할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클레어 때문에 과학자로서 창창한 앞길을 포기하고 숨어 사는 그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질리언은 클레어의 가족을 박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애비게일이 다니는 학교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미술 교사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질리언은 애비게일과 로버트를 납치해 자신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강요한다. 모성의 정의, 가족의 유대, 과학적인 발전에 반드시 따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윤리적인 논란을 스릴 넘치는 이야기에 녹여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키라 페이코프(Kira Peikoff)는 뉴욕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콜롬비아에서 생물윤리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생명과학의 혁신과 윤리성을 다루는 디지털 잡지 leapsmag.com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다. 스릴러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LIVING PROOF』, 『NO TIME TO DIE』, 『DIE AGAIN TOMORROW』 등이 있다.

NON-FICTION



제목: THE POWER OF HEART
가제: 마음이 이긴다
저자: Amy Bloch
출판사: St. Martin's Essentials
발행일: 2019년 11월 5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에세이

* **"우리가 가진 지혜가 솟아나는 진짜 원천은 가슴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선물 같은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Simple Abundance』의 저자 새라 밴 브레스낙**
* **"지성을 강력하게 휘어 잡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발휘하여 더 현명하고 깊이 있게 배우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이드.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화와 행복으로 바꾸는 여러 갈래의 간단한 길을 보여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Finding Your Own North Star』의 저자 마사 벡**

가끔 뉴스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에 '빈곤국' 혹은 '저개발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의 이름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경제력이 성공의 일차적인 기준이고 경제적 성공이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쫓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필수로 여겨진다. 이미 수십 년째 입시 지옥인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으로 확신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 잘 되고 그래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 그것도 의대를 졸업하고 높은 지성을 누구보다 중시하며 살아온 저자의 가치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 둘째 딸이 아예 선천적으로 그러한 지성을 평생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자는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혔고 이는 끝없는 절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력을 발휘할 수 없고 머리를 쓸 수 없는 삶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면 불행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믿었던 저자는 딸 에밀리가 여태 접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견실하며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제야 비로소, 뇌가 아닌 심장이, 머리가 아닌 가슴이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천이며 어쩔 수 없이 심장에 먼저 기대야 하는 에밀리가 머리 쓰는데 골몰하고 지력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반인'들이 상상치도 못할 행복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는 진실을 배운다. 저자는 평생 믿고 확신했던 생각이 생각들이 늘 찾으려고 노력했던 행복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 이유였다는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는 중증 뇌 기형을 갖고 태어난 에밀리를 처음에는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아이로 바라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며 매 순간, 모든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에밀리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틀린 믿음이었는지 알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담고 있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에밀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최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 호기심과 의문이 뇌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온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이 깨달음이 저자의 가족 전체는 물론 저자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리키는 것에 주목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뇌의 기능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힘을 찾고 용기와 인내를 끌어 모으는 것, 자아 비판과 의심에 찌들지 않고 자신감과 즐길 줄 아는 마음을 더 키우는 것, 이 소중한 능력은 모두 가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감동적이고 유익한 책이다.

<목차>

1. 머리말: 머리를 중시하던 엄마가 가슴을 더 중시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살게 된 이야기
2. 강한 마음 - 마음은 어떤 도움을 줄까
3. 그냥 계속 수영하면 돼 - 물살이 거셀 때 힘과 용기, 희망, 회복력을 찾는 법
4. “잘 모르겠어요”의 힘 - 불확실성을 안고 사는 삶
5. 정의 vs. 그냥 - 힘든 감정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6.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 - 나는 진정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진실인가
7. 목적과 의미 - 자신에게 “엄청 중요한 일”을 위해 사는 것
8. 마음에서 마음으로 - 유대와 소속
9. 사랑 - 진정한 슈퍼파워
10. 온 마음을 다해 - 자유, 평화, 경이로움, 그리고 기쁨

<저자 소개>

에이미 블로크(Amy Bloch)는 다트머스 대학교와 예일 의과대학, 뉴욕 코넬 병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23년과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의학 치료를 실시해왔다.

제목 : HOMESICK
가제 : 내 미운 동생
저자 : Jennifer Croft
출판사: The Unnamed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자매 사이의 긴장감, 갈라진 운명을 아주 불안정한 심정 그대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탐구한 독창적이고 뛰어난 에세이" - 『Those Who Knew』의 저자 이드라 노비
*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작용, 자매의 복잡한 유대를 지적이고 우아하게, 감각적으로 탐구한 이야기. 감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독특하다." - 「커커스 리뷰」

지나온 어린 시절은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가 가끔 우연히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솟구치곤 한다. 사진 속의 내가 그 시절, 그 시각에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날 때도 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본 것처럼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 수상 경력이 많은 재능 있는 번역가인 저자는 오클라호마 주 털사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여섯 살부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자신이 직접 찍었던 사진을 발견하고 느낀 그 복잡한 감정을 가장 자신 있는 수단으로, 즉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늘 붙어 다니며 같이 놀고, 싸우고, 경쟁했던 여동생과의 추억을 스페인어로 쓰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추가하고 저자가 직접 영어로 번역한 '소설 같은 회고록'으로 완성되었다. 자신과 여동생의 이름을 에이미와 조로 바꾸고 구체적인 장소나 세부적인 내용도 바꾼 이 책은 저자 스스로 정한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소설'로도 볼 수 있다. 까불고 장난치길 좋아하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비극과 동생과는 여러모로 참 많이 달랐던 저자가 처음으로 언어를 향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느끼고 이후 벌어진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언어로부터 치유 받게 된 이야기가 시처럼 유려하게 흘러가는 글, 매력적인 사진들로 그려진다.

에이미는 동생 조의 유치원 졸업식 날, 일년에 몇 번 만날 기회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에이미도 마찬가지여서, 할아버지는 한 마리 제비처럼 쉴 새없이 재잘대고 뒷마당을 뛰어다니는 조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셨다. 할머니를 독차지하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열심히 자랑하는 사이, 할아버지가 나갈 때와는 확 달라진 얼굴로 돌아와 조가 갑자기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이야기했다. 눈치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굉장히 빠른 아이였던 에이미는 엄마 차 뒷자리에 동생과 나란히 앉아 병원으로 향하던 그 때, 동생이 더 이상 원래 알던 동생이 아님을 알아챈다. 에이미의 두 눈에 늘 반짝이던 빛과 생기는 모두 사라지고 분명 눈을 뜨고 있지만 무엇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진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조와 에이미는 매년 그랬듯 그 해 여름에도 엄마가 카운슬러로 일하는 캠프에 따라가서 신나는 추억을 쌓았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나무들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 투명한 강물에 몸을 던지고 수영을 배울 때 에이미는 잘 따라오지 못하고 반응이 좀 느리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개학 직후 두 번째 발작이 찾아왔고 또래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아이였던 에이미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찾아왔을 때 왜 나와보라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보다 수학 공부를 도중에 멈춰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마지못해 일어서 교실 밖으로 나온 에이미는 데리러 온 엄마 손에 이끌려 생전 처음으로 앰뷸런스에 오른다. 조는 눈이 허옇게 뒤집힌 채 계속 구토를 하고 작은 손가락 끝까지 이상한 경련이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계속 피를 뽑아갔고, 길고 지루한 검사 끝에 결국 조의 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리고 부모님은 양성 종양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하기로 결정한다.

저자는 조가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아버지의 결단으로 집에서 홈 스쿨링을 받았을 때의 일을 회상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인 사샤라는 잘생긴 선생님을 흠모한 에이미는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동생과 괜한 경쟁을 벌이고, 동시에 자신의 언어적인 재능을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후 에이미는 열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언어와 사진, 늘 좋아했고 관심도 많은 두 분야에 푹 빠져서 살지만 조는 전신 홍반루푸스 진단까지 받고 집에 계속 발이 묶인 채로 살아간다. 첫사랑이었던 사샤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조에게 연달아 들이닥친 불운에 자신이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에이미는 급기야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른다. 목숨을 건지고도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에이미는 열여덟 살에 대학을 졸업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베를린으로 떠나고, 유럽 전역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동생이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 동생을 떠올리면서 찍었다는 사진들과 사진처럼 생생하고 매혹적인 글로 나라와 나라, 언어와 언어 사이를 오가며 조금씩 치유를 받는 저자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목차>

1부. 병
2부. 집

<저자 소개>

제니퍼 크로프트(Jennifer Croft)는 2018년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축이 쓴 FLIGHTS의 번역서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다. 풀브라이트, PEN, 맥도웰 미국 국립예술기금위원회의 장학생 출신이며 마이클 헨리 번역 상(Michael Henry Heim Prize for Translation)을 수상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쳤다. 아르헨티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글을 번역해왔으며 뉴욕타임스, 뉴 리퍼블릭 등에 실렸다.

제목 : NOW WE HAVE YOUR ATTENTION
가제 : 뉴 보이스
저자 : Jack Shenker
출판사: Bodley Head
발행일: 2019년 9월 1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정치

*** 포르투갈어 번역 판권 계약 완료**

***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느낀 책. 우리가 왜 현재와 같은 위기에 처했는지 알고 싶다면 정치에 관한 대화에서 너무나 자주 제외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칼럼니스트, 저술가, 정치운동가 오웬 존스(Owen Jones)**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사람과 만났을 때가 유일했던 시절이 있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발명된 후부터는 집에 가만히 앉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치적 권력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언론 통제를 중대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비열한 언론 조작의 가능성에 질린 사람들은 더 이상 주류 언론의 보도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긍정적인 기사가 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유투브와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가디언」지 특파원으로 이집트에 머물면서 '아랍의 봄'이라 이름 붙여진 중동 지역의 유례 없는 시위와 혁명을 직접 목격하고 보도한 저자는 영국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변화의 물결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습적인 정치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는 불신이 확산된 후 속속 등장한 새로운 정치 단체와 운동이 그저 한 목소리 내려는 과격하고 단편적인 움직임을 넘어 영국의 정치 판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맨체스터의 창고, 에섹스의 펍과 글래스고 외곽 지역, 더럼의 경마장 등에 모여든 사람들과 그들이 주창하는 긍정적인 변화와 시도가 낳은 결과를 분석하면서 현재 영국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밝히고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미래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가 취재한 지역과 내용의 배경은 모두 영국이지만 불협화음 일색인 현대 정치와 세계화, 부의 불균등한 분배, 실업, 주택 위기 등 시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서게 만든 문제는 전 세계에 이미 팽배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던 외면 당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변화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위태로운 일자리, 일반적인 시민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치솟은 집값, 끝이 보이지 않는 채용 전쟁에 모든 인생을 걸지만 취직이 된다고 해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 수십 년간 벌어서 갚아야 하는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하는 젊은 세대의 탈출구 없는 고통이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자극과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자는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환멸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 참여로 이어진 과정을 추적한다. 맥도날드 직원들이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캠브리지의 '맥 스트라이크', 2017년 72명의 사망자를 낸 켄싱턴 그렌펠 타워의 화재 사건 이후 지속적인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쉬쉬하고 무시한 당국을 고발하기 위해 들고 일어선 사람들의 분노, 뉴캐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우파 블로거들, 브라이튼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국민의 손에서 시작되는 정치적인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든 시민의 정치 행동을 피상적인 관찰이 아닌 속에서부터 철저히 파헤친 최초의 안내서라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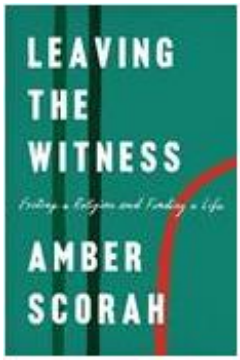
<목차>

1. 머리말: 맨체스터 앤코츠 – 옛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2. 에섹스 틸버리 – 과거의 정치가 무너진 곳: 산업화 이후 영국과 변화하는 노동계급
3. 서더크 앨리펀트 앤 캐슬 – 새로운 정치가 탄생한 곳: 오늘날의 노동과 불안정, 저항
4. 켄싱턴 올림피아 –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곳에서 터져 나온 분노: 호화 부동산 박람회, 그렌펠, 그 사이에서 발생한 주택 위기
5. 스트래세이번 덩가벌 –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고투가 벌어지는 곳 – 이민, 국가주의, 정체성
6. 이스트 서섹스 브라이튼 – 제도적 권력이 점유한 곳 – 새로운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
7. 뉴캐슬 노스쉴드 – 새로운 경계를 위한 싸움: 기술, 데이터, 디지털 보편화를 위한 싸움

<저자 소개>

잭 셴커(Jack Shenker)는 오웰 상(Orwell Prize) 결승 후보에 두 차례 오른 리포터다. 2011년에 가디언 이집트 특파원으로 '아랍의 봄'을 취재했다. 저서로는 당시 경험을 토대로 쓴 『The Egyptians: A Radical Story』가 있다. 뉴욕타임스,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등에 기사를 기고해 왔다.

제목 : LEAVING THE WITNESS
가제 :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저자 : Amber Scorah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9년 6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이야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은밀한 종교를 자세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 AP 통신
* "저자가 겪은 거대한 슬픔, 믿고 의지했던 것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도 이 책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지적 완결성은 기적 그 자체다" – 「뉴욕타임스」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을 하나로 결합할 방법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책" – 「오프라 매거진」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굳은 믿음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종교는 삶 자체를 넘어 그 믿음 하나만을 위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 3대째 바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어차피 멸망할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같은 건 다 소용 없는 일이라는 확신에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선교를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저자는 오랫동안 열망했던 곳, 중국에서 새로운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이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애정이 전혀 없는 남편과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그런 답답함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저자가 택한 탈출구 혹은 상쇄 방법은 해외 선교였다. 특히 중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사명, 즉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전도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인 만큼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설파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나라였기에 그만큼 매혹적인, 반드시 넘어서고 파고들어야만 하는 최종 목적지로 여겨졌다. 이런 극단적인 특성에 이끌린 저자는 밴쿠버에서 동료 신도들과 한 달에 80시간씩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선교 활동을 벌이던 틈틈이 중국어를 공부했고 남편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와 3년을 머물며 부족한 언어 실력을 채워갔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중국 땅을 밟고 신분도, 목적도 감춘 채로 본격적인 중국 생활을 시작한다. 엄격한 감시망을 피해 최대한 많은 중국사람들에게 신의 계시를 정확하게 전하고 경고하여 곧 닥칠 미래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던 저자는 위장을 위해 구한 일자리와 자연스레 만난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평생 흔들림 없이 믿었던 사실과는 너무나 다른 '진짜' 세상의 풍경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상하이에 도착한 뒤 저자가 겪은 일생 최대의 변

화, 여호와의 증인에서 벗어나기까지 벌어진 일들은 「더 빌리버」라는 매거진에 이 책과 동일한 제목으로 처음 실렸고 이후 더 자세한 기사를 추가로 실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할 만큼 세간의 엄청난 관심을 얻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자가 생후 4개월된 아이를 탁아 시설에서 허무하게 잃은 사연 역시 「뉴욕 타임스」 기사로 알려지며 조회수가 무려 220만 회를 넘어섰다. 그 누구보다 굴곡 많은 삶을 견디며, 나이만 성인일 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황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자의 지난 삶은 철저한 세뇌 교육과 신도를 붙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바깥 세상과 고립된 채로 전 세계 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도 수를 유지하고 있는 어느 비밀스러운 종교에 관한 내부자의 날카로운 고발이자 어떤 위험과 비극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줄기 희망을 위해 자유를 선택한 저자의 결단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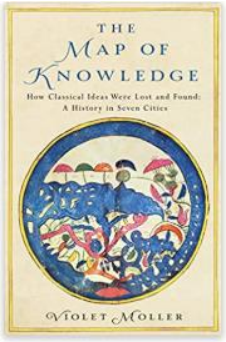
중국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목표로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해 동의를 얻어낸 저자는 막상 상하이에 도착한 후, 외모부터 완전히 다른 서양인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종교를, 그것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전파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체감한다. 법으로 허용되는 종교인 기독교도 정해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종교 활동을 국가가 엄격히 감시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으로 끝나면 다행인 상황이었다.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가능성을 마음 한 편에 늘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기회를 엿보던 저자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 일자리를 얻는다. 어차피 중국에 온 진짜 목적을 숨길 수 있는 위장 취업이 필요했기에 언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곳에서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곧 닥쳐올 종말 같은 건 개의치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행복하게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제대로 마주한다. 온라인에서 만난 한 남성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와의 우정이 깊은 애정으로 발전해 갈수록 어쩌면 그 종말이라는 것이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을 트기 시작한다.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남편과의 결혼에 종지부를 찍기로 다짐한 후 가족까지 모조리 등을 돌리자, 저자는 이제 막 걸음마 정도 뗀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내던져진다. 저자는 솔직 담백한 표현과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평생의 신앙을 직접 내던지고 세상에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극적인 과정을 이 책에서 생생하게 들려준다. 과감한 선택의 순간과 영리한 의심, 선택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와 용서, 가슴 아픈 비극이 남긴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이야기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총 3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앰버 스코라(Amber Scorah)는 스콜라스틱(Scholastic) 출판사 편집자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뉴욕타임스」, 「더 빌리버」, 「USA 투데이」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MAP OF KNOWLEDGE
가제 : 지식의 이동: 지도와 함께 보는 기록
저자 : Violet Moller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9년 2월 2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역사

*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 디테일이 풍부하고 방대하며 인간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 - 퓰리처상 수상자, 『The Swerve』의 저자 스티븐 그린블랫
* "여러 신앙과 대륙을 넘나들며 지식이 축적된 큰길과 샛길을 누비는 방대한 보물찾기 같은 책" - 시인, 극작가 존 아가드(John Agard)

가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우리가 박물관이나 위인전, 사극에서나 접하던 먼 옛날의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해 조상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소개한 내용을 접하노라면 오늘날의 과학적인 기술과 최첨단 장비 하나 없이 책과 문서를 지키기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세상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새로운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처음 밝혀지는 것만큼이나 보존되고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먼 옛날의 학자들도 바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양피지나 갓 발명된 종이, 돌, 목판 등에 새겨진 지식을 지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것이다. 역사학자인 저자는 현대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 철학과 수학, 천문학, 지리학이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한 후 그 많은 세월을 거쳐 어떻게 지금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는지 공부를 시작한 초기부터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탄생한 지식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누가 사본을 만들고,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열정적으로 추적한 기록과 문서의 역사가 담긴 이 책은 그 소중한 지식이 보관되고, 번역되고, 발견되고, 전파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7개 도시를 소개한다. 알렉산드리아, 바그다드, 코르도바, 톨레도, 살레르노, 베니스, 팔레르모까지 지중해 유역에 자리한 이 도시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 역사를 가졌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확립하여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자금이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재능 넘치는 학자들, 인제들이 모여드는 중심점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고대 사회부터 전해진 위대한 지식은 새로 권력을 잡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적인 사상으로 치부되어 상당수가 파괴되는 '암흑기'를 맞이했다. 고대 지식의 보고로 여겨지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파괴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책이 불에 타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7개 도시에서는 깨어 있는 지식인들과 지식의 귀중함을 아는 후원자들의 손에 의해 재로 사라질 뻔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보존되었다. 저자는 특히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과 갈레노스가 쓴 의학에 관한 자료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의 궤도와 회전에 관한 발견을 총정리

한 '알마게스트(가장 위대한 책)'이 약 1,000년에 걸쳐 이 7개 도시를 따라 옮겨 가고 전해진 과정을 따라간다. 저자는 먼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지식의 수도이자 유클리드가 기원전 300년경 '기하학 원론'을,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마게스트'를 쓴 곳이기도 한 6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상황을 살펴본 뒤 아랍인들이 그리스에서 탄생한 지식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알렉산드리아가 무너진 후 사방에서 지식이 모여드는 곳이 된 9세기 바그다드로 넘어간다. 당시 바그다드에 설립된 여러 공공 도서관에서는 그리스어로 작성된 다양한 지식들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갓 발명된 종이에 옮기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저자는 무슬림 국가들과의 지식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스페인 코르도바와 아랍어 자료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리스와 아랍의 지식이 서유럽으로 전해지는 기점이 되었던 톨레도, 의학 연구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해안의 살레르노,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기에 서구에서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였던 시칠리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들려준다. 더불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위인들뿐만 아니라 12세기에 아랍어로 된 '알마게스트'를 라틴어로 처음 번역했던 크레모나의 번역자 제라드와 중세 후반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여성 의사들의 활약 등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식의 보존과 확산에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한다.
문명이 어떻게 전달되고 지켜질 수 있었는지 그 극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장. 대대적인 소실
2장. 알렉산드리아
3장. 바그다드
4장. 코르도바
5장. 톨레도
6장. 살레르노
7장. 팔레르모
8장. 베니스
1500년 이후

<저자 소개>

바이올렛 몰러(Violet Moller)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지식 역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옥스포드에서 역사가,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The Curious World of Dickens』, 『Oxford in Quotations』, 『About The Bodleia』가 있다. 「The Scotsman in Edinburgh」의 예술 부문 보조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Arena」, 「The Face」, 「Frank」등에 글을 기고했다.

제목 : THE MIRACLE PILL
가제 : 어쨌든 움직여라
저자 : Peter Walker
출판사: Simon and Schuster
발행일: 2021년 5월
분량 : 2020년 6월 원고 완성
장르 : 건강

*** 하루 종일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의 생활이 건강에 끼친 파괴적인 영향 - 현 상태에 이른 과정을 추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전히 새해가 되면 헬스, 수영, 요가 등 운동시설에 회원권을 끊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컨디션이 나빠지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다. 암과 같은 큰 병을 이겨내고 장애 등 결코 평범하지 않은 힘든 삶을 이어가면서도 각종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해서 한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열광하고 '나도 저 사람의 반만 따라가야 할 텐데'라는 자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운동은 고사하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살아간다.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보내느라 건강관리 기관 등이 정한 최소 운동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생활로 인해 전 세계 15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심장질환, 당뇨, 암, 관절염, 우울증, 치매에 시달릴 위험이 높은 상황이며 비만보다 비활동적인 생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디언 기자로 정치와 능동적인 삶, 건강에 관한 기사를 쓰고 전 세계 공중보건 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저자는 이 책에서 어쩌다 우리가 몸을 이토록 안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추적하고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비활동적 삶의 악영향을 밝힌다. 더불어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참신한 시도를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것은 스트레스와 아침부터 밤까지 쫓기듯 흘러가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해결과제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힌다.
저자는 과거에는 몸을 움직여야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눈부신 기술 발달로 가만히 앉아서, 혹은 조금만 움직여도 가능한 일로 바뀌었고 이제 이전만큼 몸을 움직이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사냥과 수렵 활동이 주가 되었던 원시 시대부터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형성된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생존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찾고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걷고 뛰며 계속 움직여야 하는 삶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환경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반대의 생활이 일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두 눈과 정신이 스크린에 고정된 채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심지어 택시를 잡거나 장을 보는 일까지 스마트폰이 다 알아서 해주니 그야말로 방안에 앉아 손가락만 움직여도 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영국의 중년층 절반은 한 달에 10분 이상 걷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정도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책에서 운동 부족이 야기한 심각한 결과를 상세히 전한다. 그러나 축소 보도되거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겁을 주기보다 명확한 사실과 전망을 전함으로써 개개인이 현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신체 활동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시급성을 깨닫도록 독려한다. 꼭 필요한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건강서다.

<목차>

1장. 헬스클럽 회원권이 전부는 아니다
2장. 기적의 약: 신체 활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3장. 해일: 비활동적인 생활이 붕괴시킨 건강 시스템
4장. 운동을 만든 사람들
5장. 날씬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비만과 비활동적인 생활은 다른 문제
6장. 인적 척도에서 본 이동수단
7장. 사무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8장. 활동성이 큰 아이로 키우는 방법
9장. 활동과 나이: 대소변을 알아서 가리는 능력
10장. 변화가 일고 있다: 사회 공학의 영향력
11장. 활동성을 유지하는 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저자 소개>

피터 워커(Peter Walker)는 가디언 정치부 기자로 정치와 활동적인 생활, 건강에 관한 이슈를 주로 다루어 왔다. 저서로는 영국,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에 판매된 『Bike Nation』이 있다.